도, 우기전 지방하천 재해예방 총력

특교세 36억원 확보 하도 준설 사업 긴급 투입 계획
유지보수 사업비 85억원서 120억원으로 확대 추진

전북자치도는 장마철을 앞두고 행정안전부에 적극 건의한 결과, 도내 지방하천의 재해 예방을 위한 재난 안전관리 특별교부세 36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통수 단면이 부족한 7개 시·군 20개 지방하천의 하도 준설 사업에 긴급 투입하여 홍수 대응능력을 강화시킬 계획이다.

하도 준설 사업이란 하천 내 퇴적물이 오랜 기간 쌓여 물이 흐를 수 없게 되면 지속적인 하천 수위 상승, 배수불량 등으로 농경지 침수 피해까지 이어져 큰 피해를 보게 됨에 따라 하천의 퇴적물을 제거하고 물이 원활히 흐르도록 단면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번 특교세 확보는 그간 준설 등이 필요로 했지만 재정 부족으로 사업 시행이 어려웠던 지방하천에 지방비 경감, 홍수 대응능력 향상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하도 준설, 하천시설물 정비, 불법행위 점검 등을 추진하는 '지방하천 유지보수 사업' 또한 사업비 120억원으로 확대 추진한다.

아울러 공사 중인 하천 현장에 장마철 인명사고, 침수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꾸준한 점검으로 집중호우에 대비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는 신속히 해당 시 군에 재정을 투입해 우기 전 해당 사업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유지관리 상황에 대해 반기별로 점검·평가를 해서 하천범람으로 인한 재해 예방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강해원 전북특별자치도 환경녹지국장은 "최근 기록적인 호우로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조기에 특교세를 확보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방하천 재해예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침수 안전산업 기술혁신 선도

도내 3개 기업, 침수 제품 및 기술 연구개발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침수 안전사업의 기술혁신 선도에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침수 안전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R&D)에 최종 3개 기업을 선정해 2년간 도비 5억6,000만원씩을 지원할 예정이다.

침수안전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은 침수 안전산업 진흥시설과 연계해 도내 침수 분야 안전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 관련 제품 및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북자치도는 재난 안전산업 협의체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복합재 기반 이동식 차수제품'와 '고용량·고유량 침수예방 펌프 및 모니터링 시스템', 'ICT 기반 도시 침수 통합 관제 시스템' 등 총 3개의 침수 분야 연구과제를 기획·도출하였고, 과제 공모와 선정 심사위원회를 거쳐 3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추후 3개 기업은 전북테크노파크와 협약을 맺고 침수 진흥시설을 활용한 침수 제품 개발 연구에 매진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는 2023년 침수 진흥시설 최초 선정, 2024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 R&D 공모에 도내 기업 선정 등 침수 재난 안전산업 분야의 대표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연구개발 사업도 도내 안전기업의 침수 제품의 개선 및 기술 고도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형수 전북자치도 안전정책과장은 "전북자치도는 침수 분야의 기술혁신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다"며, "전북이 재난안전산업의 선도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일본 관광객 유치 위한 관광 홍보 앞장

일본 여행업계·언론인 40여명 초청 팸투어 진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일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에 두 팔을 걷었다.

전북자치도가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일본 여행업계와 언론인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추진하고, 주요 관광명소와 음식 등 도내 관광콘텐츠 알리기에 적극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일본 여행객 대상 특별상품 개발을 위한 메가 팸투어를 23일부터 24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전주, 완주 일원에서 진행했다.

이번 팸투어에는 HIS, 한큐트래블 등 일본 유력 여행사(18개) 소속 상품 기획담당자 및 치바테레비, 아사히 신문사, 도쿄뉴스통신사, 마이니치시신문 출판 등 유력 언론사(19개) 소속 언론인 40여 명이 참여했다.

팸투어단은 22일에 입국해 인천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다음 날인 23일에 전주로 이동했다.

전북자치도가 일본 여행업계와 언론인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추진했다.

전주 한옥마을과 전라감영, 덕진공원 등 전주의 주요 관광명소를 둘러보고, 대표 미식관광 콘텐츠인 전주비빔밥과 전주 막걸리를 맛보는 등 바쁜 일정을 보냈다.

24일에는 아름다운 자연과 한옥이 어우러져 있고, MZ세대가 즐겨 찾는 핫플레이스인 완주 아원고택과 소양고택을 방문해 특별한 추억을 쌓았다.

이남섭 전북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에 전북을 방문하는 팸투어단이 전북의 매력을 발견하고, 여행상품 판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북의 역사와 문화, 대표 음식 등 전북 관광 콘텐츠를 적극 홍보했다"며, "해외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고 전북의 멋과 맛을 제대로 보여줘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해외 관광객 유치에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2024년 지방세 모범납세자 190명 선정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방세의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이바지한 모범납세자 190명(개인 152명, 법인 38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모범납세자는 최근 3년간 십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납부 건수가 매년 3건 이상 등 기준을 충족한 대상자를 시장·군수가 추천하면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다.

전북자치도는 이번에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 감사패와 모범납세자 우대카드를 수여하며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선정된 모범납세자 중 세입기여도 및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고려해 20명(개인12, 법인8)에게는 도지사 표창장을 수여했다.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올해 6월부터 내년 5월 말까지 1년 동안 도내 7개 시설 이용료 할인 및 감면, 엔에이치(NH)농협은행과 전북은행에서 대출금리 및 예금 금리 우대, 일부 금융수수료 면제 등의 금융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만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가 2024년 제46차 한국동물위생학회에서 최우수기관상 및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전북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한국동물위생학회 '최우수기관상'

활발한 학회지·학술활동 인정 받아

전북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가 23일부터 24일까지 대구광역시에서 개최한 2024년 제46차 한국동물위생학회에서 최우수기관상 및 우수논문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최우수 기관상은 2023년 활동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심사한 결과 전북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선정됐다.

지난해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작성한 '전북지역 소에서 첫 럼피스킨 발생 보고' 논문은 우수 논문상을 받았고, 럼피스킨 백신 관련 포스터 도 대상을 수상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

한국동물위생학회는 1978년 창립되어 수의학 분야의 학술연구와 학문교류를 위한 장으로 전국 17개 동물위생시험소 소속 공무원 850명으로 이루어진 수의학 관련 학술단체이다.

동물질병과 축산물 위생분야 논문 발간과 연구 등의 학술활동을 통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전북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이 한국동물위생학회장을 맡고 있어 전북자치도가 대한민국 동물위생 연구에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다.

박태욱 전북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재난형 가축전염병의 방역 등 산적한 현안 업무에도 양축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내실 있는 현장 밀착형 연구에 정진하여 이번 학술발표대회에서 전북자치도의 위상을 드높인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 신속한 가축 질병의 진단과 위생적인 축산물검사를 빈틈없이 하여 도내 축산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시·군 새내기 농업직공무원 '농업 바로알기' 교육

전북특별자치도가 미래 전북 농업을 이끌어 나갈 새싹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물과 양분을 줬다.

전북자치도 농식품인력개발원은 지난 22일부터 3일간 도내 시·군 새내기 농업직 공무원 22명을 대상으로 현장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새내기 농업직 공무원 농업 바로알기' 교육과정은 농업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농업직 공직자로서 농업·농촌에 대한 근본 가치를 이해하고, 현장 밀착형 정책 역량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농업·농촌의 이해 및 공익적 가치 △농업의 가치를 전하는 청년들의 시골살이 △농업직 선배 공무원의 업무 노하우 △민원 응대 스킬 및 커뮤니케이션 전략 △보조금 지급 및 정산 이해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새내기 공무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민원 응대 스킬 및 커뮤니케이션 전략 등의 내용을 실무중심으로 새롭게 구성해 교육생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만호 기자